

코드킴 인문논술 자료

제시문 (가)

개인에 있어서의 합리적인 선택 원칙을 사회 전체에 적용할 수 있으려면 공평한 관망자(impartial spectator)의 관점이 필요하다. 공감력과 상상력을 갖춘 이상적 존재로서 공평한 관망자는 다른 사람들의 욕구를 자신의 욕구인 것처럼 경험하고 동일화할 수 있는 완전히 합리적인 개인이다. 그는 사회 속의 다양한 욕구들의 강도를 확인하고 하나의 욕구체계 속에서 각각의 개인이 가져야 할 응분의 비중을 할당한다. 이에 따라서 사회 체제의 규칙들이 조정되며 그 욕구체계의 만족이 극대화된다. 그 결과 개개인의 욕구를 최대한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규칙에 따라서 권리와 의무가 할당되고, 욕구 충족의 희소한 수단들이 배분된다. 사회에 대한 이러한 견해는 개인의 선택 원칙을 사회로 확장 해서 얻은 성과이며, 또한 공평한 관망자가 가진 상상력의 작용을 통해 이러한 확장이 제대로 보장된 결과이다.

제시문 (나)

우리는 누구나 특정한 사회적 정체성을 지닌 사람으로서 자신을 둘러싼 환경을 이해한다. 나는 누군가의 아들이거나 딸, 또는 사촌이거나 삼촌이다. 나는 이 도시나 저 도시의 시민이며, 이 단체나 저 단체의 회원이다. 나는 이 친족, 저 부족, 이 나라에 속한다. 따라서 내게 이로운 것은 그러한 역할과 관련된 사람들에게도 이로워야 한다. 이처럼 나는 내 가족, 내 도시, 내 부족, 내 나라의 과거에서 다양한 빛, 유산, 적절한 기대와 의무를 물려받는다. 이는 내 삶에서 주어진 조건이며 도덕의 출발점이다. 또한 내 삶에 도덕적 특수성을 부여하는 것이기도 하다.

코드킴 인문논술 자료

제시문 (다)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때 자기 자신의 이익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익을 고려하기도 한다. 이처럼 자신의 이익보다 다른 사람의 이익을 먼저 생각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사람들은 도덕적이다. 사람들은 본래 동정심과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을 어느 정도 갖고 있다. 동정심과 배려의 마음은 교육을 통해 성장하기도 한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사회상황을 비교적 객관적인 눈으로 볼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사회 집단의 경우, 이와는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 모든 사회 집단은, 집단을 형성하는 개인이 자신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나타내는 것에 비해서, 충동을 견제하고 극복할 만한 이성이나 다른 입장을 헤아릴 능력이 적어서 무한한 이기심을 보인다. 이렇게 사회 집단이 개인보다 비도덕적인 이유 중 하나는 자연적 충동을 억제할 만큼 강력한 사회 세력을 만드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는 개인들의 이기적 충동들이 합쳐져 집단적 이기심으로 나타나는 데 있다. 즉 이기심은 개인적으로는 온건하게 나타나지만 집단적으로는 보다 이기적인 모습을 보인다.

제시문 (라)

아리스토텔레스의 시민적 '우의'(友誼 philia)는 정치적 결속과 윤리적 결속을 아우르는 개념이다. 시민적 우의는 선에 관한 공유된 개념을 가지고 그 선으로 인하여 폴리스의 자유 시민이 되는 선한 사람들 사이에서 구현되기 때문에, 정치는 친구들 사이의 일이며 정치 공동체는 유사한 생각을 가진 시민들이 '이익에 관해 합의하고, 동일한 정책을 채택하며, 공동의 의지를 구현하는' 장이다. 따라서 시민들이 도덕적

으로 건전하지 않으면 시민적 화합은 달성될 수 없다. 자기 이익에만 관심을 가진 부정의하고 탐욕스런 사람들은 공동선이나 타인과의 협력에 무관심하지만 덕스러운 사람들은 공동체적 유대가 강할수록 불의에 더욱 엄격해진다. 진정한 우의를 소중히 여기는 시민들은 공동체적 유대가 강하다고 해서 집단적 이기주의로 전락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진정한 우의라는 덕은 스스로의 부도덕은 물론 친구의 부도덕도 바라지 않기 때문이다.

〈문제 1〉 개인과 사회는 서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개인이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부터 낮은 것으로 네 제시문들의 순서를 정한 뒤, 그 근거를 제시하시오. (1,000자 안팎으로 쓰시오. 50점)

〈문제 2〉 현대 사회에서는 구성원 상호간에 서로 상충된 요구와 주장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와 같은 갈등 상황에 대해 네 제시문들에 내포된 해법이 각각 어떤 것인지 서술하시오. (1,000자 안팎으로 쓰시오. 50점)

코드킴 인문논술 자료

논제 분석

〈문제 1〉 개인과 사회는 서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개인이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부터 낮은 것으로 네 제시문들의 순서를 정한 뒤, 그 근거를 제시하시오. (1,000자 안팎으로 쓰시오. 50점)

1. 개인이 사회에 끼치는 영향의 정도에 따라 제시문 나열
2. 각 제시문들의 양상 분석을 통한 이유 서술(각 제시문끼리의 비교를 통해)

〈문제 2〉 현대 사회에서는 구성원 상호간에 서로 상충된 요구와 주장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와 같은 갈등 상황에 대해 네 제시문들에 내포된 해법이 각각 어떤 것인지 서술하시오. (1,000자 안팎으로 쓰시오. 50점)

1. 문제 상황 정리(상충된 요구와 주장들)
2. 각 제시문들을 활용한 해결 방안 제시

제시문 독해

(가) - 개인과 사회(공평한 관망자)
주체 - 공평한 관망자
배경 - 공평한 관망자는 완전히 합리적인 개인으로, 이상적인 존재이기에
양상 - 사회의 다양한 욕구를 확인하고 그에 맞게 권리와 의무, 욕구 충족의 수단을 배분
결과 - 욕구체계의 만족 극대화

제시문 (가)에서는 공평한 관망자라는 개인이 등장하여 사회 전체의 욕구를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도대체 ‘공평한 관망자’가 어떤 인물이기에 모든 사회의 욕구를 조정해버리는 것일까요. 제시문에 따르면 공평한 관망자는 진짜 개쩌는 인물입니다.

“공감력과 상상력을 갖춘 이상적 존재로서 공평한 관망자는 다른 사람들의 욕구를 자신의 욕구인 것처럼 경험하고 동일화할 수 있는 완전히 합리적인 개인이다.”

그는 공감력과 상상력을 갖추고, 타인의 경험마저도 동일화할 수 있는 이상적 존재이자 합리적인 개인입니다. 그렇기에 사회 내의 모든 사람들의 욕구를 확인할 수 있으며, 그것들을 전부 저울질한 결과로 권리와 의무, 욕구 충족의 수단들을 전부 배분해버립니다.

“그는 사회 속의 다양한 욕구들의 강도를 확인하고 하나의 욕구체계 속에서 각각의 개인이 가져야 할 응분의 비중을 할당한다. …(중략)… 규칙에 따라서 권리와 의무가 할당되고, 욕구 충족의 희소한 수단들이 배분된다.”

결과적으로는 사회 전체의 욕구체계의 만족을 극대화시키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사회 체제의 규칙들이 조정되며 그 욕구체계의 만족이 극대화된다.”

이런 모든 일들은 ‘공평한 관망자’라는 완벽하게 이상적이고 합리적인 개인이 자신의 선택을 사회 전체에 확장했을 때에 벌어집니다. 즉, 개인이 사회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아예 사회를 혼자서 설계해버리는 것이니까요.

(나) - 개인과 사회

주체 - 개인

배경 - 누구나 특정한 사회적 정체성을 지님

양상 - 자신이 속한 사회로부터 빛, 유산, 적절한 기대와 의무를 물려받음

결과 - 내 삶에 도덕적 특수성을 부여(=도덕의 출발점이 되기도 함)

(나)에서도 개인과 사회가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정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에서는 모든 개인은 누구나 특정한 사회적 정체성을 지니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특정한 사회적 정체성을 지닌 사람으로서 자신을 둘러싼 환경을 이해한다. 나는 누군가의 아들이거나 딸, 또는 사촌이거나 삼촌이다. 나는 이 도시나 저 도시의 시민이며, 이 단체나 저 단체의 회원이다. 나는 이 친족, 저 부족, 이 나라에 속한다.”

코드킴 인문논술 자료

그냥 쉽게 말하자면 ‘누구나 사회에 속한다.’ 정도입니다. 그냥 어렵고 추상적인 첫번째 문장 뒤에 나오는 여러 예시들을 통해 이해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편한 대로 정리독해의 배경 항목에 작성해주도록 합시다.

“따라서 내게 이로운 것은 그러한 역할과 관련된 사람들에게도 이로워야 한다. 이처럼 나는 내 가족, 내 도시, 내 부족, 내 나라의 과거에서 다양한 빛, 유산, 적절한 기대와 의무를 물려받는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하는 것은 같은 사회에 속하는 구성원들에게도 이로워야만 합니다. 다양한 빛과 유산, 적절한 기대와 의무를 물려받게 되겠지요. 자신이 속한 사회의 수만큼 다양한 빛과 유산, 적절한 기대와 의무를 받을 것이라고도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런 기대와 의무의 수행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도덕적 특수성을 부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내 삶에서 주어진 조건이며 도덕의 출발점이다. 또한 내 삶에 도덕적 특수성을 부여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 부분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는 우리가 사는 사회로부터 도덕적인 기준을 받아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들이 도덕적 판단 대상이 될 때에, 그 도덕적 판단은 사회로부터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제가 식당에서 밥을 먹는다면 식당의 손님으로서의 의무와 기대에 부응하는 행위를 하기에 도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지만, 대학교의 대형 강의 중에 대놓고 뜨끈한 순대국밥을 먹는다면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겠죠. 그냥 그런 내용입니다.

(다) - 개인과 사회

주체 - 개인들

배경 -

1. 개인들의 이기적 충동이 모여서 집단적 이기심이 형성됨
2. 자연적 충동을 억제할 정도로 강력한 사회 세력 형성이 어려움

양상 - 개인적인 관계의 경우와는 다르게 집단을 형성하게 되면 충동을 극복할 이성과 다른 입장을 헤아릴 능력이 적어짐

결과 - 도덕적인 개인들이 집단적으로는 이기적인 성향을 갖게 됨

제시문 (다)는 집단적 이기심의 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모여서 집단을 형성하면 이기심이 강해진다는 것이죠. 그 원인으로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개인들의 이기적인 충동들이 모이기 때문인 것이고, 둘째는 이러한 충동들을 억제할 정도로 강력한 사회 세력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회 집단이 개인보다 비도덕적인 이유 중 하나는 자연적 충동을 억제할 만큼 강력한 사회 세력을 만드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는 개인들의 이기적 충동들이 합쳐져 집단적 이기심으로 나타나는 데 있다.”

이러한 이유들로 개인들은 이기적 충동을 극복할 이성이 약화되고 다른 입장을 헤아릴 능력이 적어지는 등, 집단을 형성했을 때에 상대적으로 비도덕적인 존재가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나름 도덕적이었던 사람들이 집단적으로는 비도덕적인 존재로 변모한다는 말이죠.

“모든 사회 집단은, 집단을 형성하는 개인이 자신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나타내는 것에 비해서, 충동을 견제하고 극복할 만한 이성이나 다른 입장을 헤아릴 능력이 적어서 무한한 이기심을 보인다.”

추가적으로 영향 요소 항목에 집단적 이기심을 억제할 수 있는 ‘강력한 사회적 세력 형성’이나 ‘교육을 통한 도덕심 함양’ 정도를 제시문에서 찾아 적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적고 싶으신 분들은 집단적 이기심의 형성과 발현을 방해하는 ‘방해 요소’로 분류하여 정리해두시면 되지만, 지금 단계에서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라) - 개인과 사회(시민적 우의)

주체 - 시민들

배경 -

1. 시민적 우의는 선한 사람들 사이에서 구현되기에
2. 선한 사람들은 공동체적 유대가 강할수록 불의에 엄격해지기에

양상 - 정치 공동체를 형성하여 이익에 관해 합의하고 동일한 정책을 채택하며 공동의 의지를 구현함

결과 - 시민적 화합 달성

(라)는 시민적 우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개인들에 속하는 폴리스의 자유 시민들이 정치 공동체를 형성하여 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것에 대해 논합니다.

“정치는 친구들 사이의 일이며 정치 공동체는 유사한 생각을 가진 시민들이 ‘이익에 관해 합의하고, 동일한 정책을 채택하며, 공동의 의지를 구현하는’ 장이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선한 개인들이 모여야만 합니다. 시민적 우의는 선한 사람들 사이에서 구현되며, 정치는 친구들 사이의 일이기 때문에 우의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시민적 우의는 선 에 관한 공유된 개념을 가지고 그 선으로 인하여 폴리스의 자유 시민이 되는 선한 사람들 사이에서 구현되기 때문에”

선행야만 시민적 우의가 구현되고, 구현된 시민적 우의를 통해 만들어진 친구 관계가 정치 공동체의 형성으로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또한, 그들은 모였다고 해서 집단적 이기주의로 전락하지 않습니다. 우의를 소중히 여기는 선한 사람들은 자신들과 다른 사람들의 부도덕을 바라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집단을 형성하여 강한 공동체적 유대를 보이면 불의에 더 엄격해지는 것이죠. 이를 제시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기 이익에만 관심을 가진 부정의하고 탐욕스런 사람들은 공동선이나 타인과의 협력에 무관심하지만 덕스러운 사람들은 공동체적 유대가 강할수록 불의에 더욱 엄격해진다. 진정한 우의를 소중히 여기는 시민들은 공동체적 유대가 강하다고 해서 집단적 이기주의로 전락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진정한 우의라는 덕은 스스로의 부도덕은 물론 친구의 부도덕도 바라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배경으로 만들어지는 정치 공동체는 결과적으로 시민적 화합의 달성에 이릅니다.

“따라서 시민들이 도덕적으로 건전하지 않으면 시민적 화합은 달성될 수 없다.”

이 말을 반대로 뒤집으면, 선한 사람들이 모여 정치 공동체를 형성한다면 시민적 화합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 충분히 추론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제시문 독해를 해내셨으면 이제 이들의 순서를 정할 차례입니다.

1번 문항 풀이

〈문제 1〉 개인과 사회는 서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개인이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부터 낮은 것으로 네 제시문들의 순서를 정한 뒤, 그 근거를 제시하시오. (1,000자 안팎으로 쓰시오. 50점)

1. 개인이 사회에 끼치는 영향의 정도에 따라 제시문 나열
2. 각 제시문들의 양상 분석을 통한 이유 서술(각 제시문끼리의 비교를 통해)

순서 정하기

순서부터 정하자면 (가) -> (라) -> (다) -> (나)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도 존재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후술하겠습니다.

이유

각 제시문들의 순서를 정한 이유를 말한다면, 다음과 같은 이유들을 전부 말해야 옳을 것입니다.

1. (가)가 가장 높은 이유
2. (라)가 (가)보다 낮은 이유
3. (라)가 (다)보다 높은 이유
4. (다)가 (라)보다 낮은 이유
5. (다)가 (나)보다 높은 이유
6. (나)가 가장 낮은 이유

코드킴 인문논술 자료

이제 하나씩 살펴봅시다.

(가)의 순서 근거

(가)에서는 공평한 관망자가 모든 사회 구성원들을 욕구를 확인하고 최대한의 욕구 만족을 위해 권리와 의무, 욕구 충족의 수단들을 배분합니다. 한 명의 개인이 전체 사회의 욕구 체계를 처리해버린다는 점에서 개인이 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정도가 가장 높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라)의 순서 근거

제시문 (라)에서는 시민들이 모여 정치 공동체를 형성하여 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한 개인들이 정치 공동체를 통해 사회를 형성하고, 사회에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는 (가)와 비슷합니다만, 어느정도 차이가 존재합니다. 하나의 개인으로는 모든 일을 해낼 수가 없고, 반드시 공동체를 형성해야만 사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모든 것을 개인 혼자서 처리해버리는 (가)와는 달리, 여러 개인들이 모여야만 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이죠.

또한, (다)보다는 (라)가 개인이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높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시문 (다)에선 집단을 형성한 개인들이 자신의 도덕적인 특성을 잃어버리고 집단적 이기심을 형성하는 데에 머무릅니다. 즉, 끼치는 영향이 집단적 이기심의 형성에 멈추는 것이죠. 그러나 (라)는 집단을 형성하고 그를 토대로 '이익에 관해 합의하고, 동일한 정책을 채택하며, 공동의 의지를 구현하는' 형식으로 사회에 영향을 끼칩니다. 상대적으로 훨씬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의 순서 근거

(라)의 순서 근거를 말씀드릴 때에 말씀드렸듯이, (다)에서는 집단적 이기심만을 형성하지만, (라)에서는 개인들이 모여 정치를 통해 사회에 분명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라)보다는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이 적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보다는 사회에 영향력을 많이 끼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의 개인들은 사회로부터 물려받은 기대와 의무를 수행하는 것에 머무르지만 (다)의 개인들은 직접 모여 사회를 형성합니다. 즉, (다)는 개인들이 모여 사회를 형성한다는 영향을 끼쳤기에 (나)보다는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이기적인 충동들이 집단적 이기심을 형성한다는 점에 있어서도, 개인들의 이기적 성향이 사회에 영향을 미쳤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나)의 순서 근거

(나)는 통상적으로 보기에 가장 낮은 개인의 사회에 대한 영향력을 보여줍니다. 이곳에서의 개인은 사회에 영향을 거의 끼치지 못하고, 오히려 사회로부터 물려받은 기대와 의무에 부응하여 행동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회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사회에 영향을 받기만 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이죠.

새로운 관점

하지만, 이런 답안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2014년의 연세대 인문, 2번 문항에서 볼 수 있었듯이 답안이 2개로 존재할 수 있음을 확인하셨을 겁니다.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번 문항. 이 문항의 풀이에서 답안이 2개로 존재할 구색을 찾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관점으로 근거를 찾아 순서를 재지정한다면 (라) -> (가) -> (다) -> (나)도 가능할 것입니다.

새로운 관점의 근거 1

먼저, (가)와 (라)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에서는 공평한 관망자가 사회 구성원들의 모든 욕구 체계를 만족시키고 있습니다. 이미 위의 해설에서 간과된 부분이 존재함을 눈치채셨을 수도 있습니다. 공평한 관망자를 제외한, 사회 속의 다른 구성원들입니다. 그들은 공평한 관망자의 배분에 수동적으로 존재할 뿐입니다. 그의 욕구 체계 배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주어진 배분을 받아들이기만 합니다. 즉, 공평한 관망자를 제외한 다른 개인들이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이라고는 그들이 가진 욕구의 강도 뿐인 것이죠.

반면, (라)에서는 폴리스의 모든 선한 시민들이 모여 사회를 형성하고, 정치 공동체를 통해 사회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정치 공동체를 형성한 폴리스의 선한 자유 시민들은 어느정도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이지요. 단 하나의 개인이 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정도야, (가)의 공평한 관망자가 가장 높겠지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에 모든 개인들이 어느정도 사회에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라)가 더 높은 사회적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관점의 근거 2

(나)와 (다)의 순서도 재정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약간의 외부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나)에서는 사회에 속한 개인들이 자신들이 속한 각각의 사회에서 얻는 기대와 의무를 수행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말로 그것을 수행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빛과 유산, 의무와 기대의 수행을 통해서 다시 사회를 유지시킵니다. 이렇게 유지된 사회는 다른 개인에게 빛과 유산, 의무와 기대를 부여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들은 나름대로 바람직한 사회의 구성에 의무와 기대의 수행을 통해 참여하고 있는 것이며, 어느정도 사회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는 개인들이 모여 사회를 형성한다는 점에서는 (나)보다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만들어낸 사회에서 개인은 이기심만이 존재하게 됩니다. 즉, 도덕적인 개인은 사라지고 집단적 이기심만이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개인의 도덕성은 이런 집단적 이기심을 형성한 사회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기적인 개인은 이기심의 형성에 도움을 줬더라도, 막상 도덕적인 개인은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것이죠. 또한, 그들은 이렇게 만들어진 사회를 통제할 수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오히려 이들은 사회를 형성하면서 사회에게 개인들을 빼앗긴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려면 이기적인 개인들이 모여 집단적 이기심을 형성한 것과 사회로부터 물려받은 의무를 수행함으로써 바람직한 사회를 유지시키는 것 중에, 무엇이 더 사회에 끼치는 영향이 큰가를 저울질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람직한 사회의 유지를, 개인들이 사회를 형성한다는 것보다 더 높게 평가한다는 근거가 있어야만 가능한 순서의 변경이죠. 이 점에서 제시문을 벗어난 보편적 가치를 끌어와야 한다는 점에서 외부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와 (다)의 순서를 이런 근거들을 들어 변경하셔도 좋지만, (다)와 (나) 순서대로 배치한 다음, 이러한 관점도 존재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훨씬 타당해보입니다.

2번 문항 풀이

〈문제 2〉 현대 사회에서는 구성원 상호간에 서로 상충된 요구와 주장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와 같은 갈등 상황에 대해 네 제시문들에 내포된 해법이 각각 어떤 것인지 서술하시오. (1,000자 안팎으로 쓰시오. 50점)

1. 문제 상황 정리(상충된 요구와 주장들)
2. 각 제시문들을 활용한 해결 방안 제시

정말 쉬운 문제입니다. 앞서서 2014 인문에서 대단한 것들을 보고, 사회 계열의 1번 문제에서도 대단한 것을 봐서인지, 이 문제가 약간 허술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이 문항의 풀이에 있어서는 각 제시문을 주어진 문제 상황에 구체화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만 제시문 별로 서술하고 넘어가겠습니다.

- (가)- 공평한 관망자가 등장하여 요구를 판단한 뒤, 그것들을 최대한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규칙 따르기
- (나)- 각 사회에서 주어진 기대와 의무에 우선 순위를 정한 뒤, 잘 따르기 -> 도덕적 행위 달성
- (다)- 1. 교육을 통해 도덕심을 지닌 개인이 집단에 소속되어 생각하기 보다는, 개인의 관점에서 행위를 생각해보기/2. 강력한 사회적 세력을 형성하는 것이 어려울지라도 노력해보기
- (라)- 선한 시민들로 이루어진 정치 공동체로 사회에 영향을 끼치기 + 부정의하고 탐욕스러운 사람들의 부도덕에 대해 엄격히 대응.

코드킴 인문논술 자료